

대학원대학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Improving Plan for Graduate School Library

정진식** · 오미성***

Jin-Sik Chung · Mi-Seong Oh

차례

- | | |
|---------------|------------|
| 1. 서론 | 3. 결론 및 제언 |
| 2. 수집 데이터의 분석 |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교 도서관운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장답사와 실무자 인터뷰 및 이용자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①다국적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대학원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한국에 대한 폭넓은 홍보 ②이들에 대한 이용자교육에 의한 외부기관자원 활용방법을 숙지 ③서지, 색인, 초록 등과 같은 2차 자료는 물론 연구준비 단계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full-text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④학문적 요구를 사전 인지하여 제공할 수 있는 FISP(Forecasting Information Service Program)와 같은 정보서비스 전략방안을 도입하여 도서관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키워드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정보시스템환경, 정보이용행태

* 본 논문은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 jschung@hansung.ac.kr)

***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사서
(Librarian, Cheongshim Graduate School of Theology, bluehi225@naver.com)

• 논문접수일자 : 2008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자 : 2008년 12월 10일

ABSTRACT

The Result of this study ①In the case of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ince it makes up a very interesting and diversified racial environment that shapes the multinational global community, there must be careful considerations for foreign students together with wide publicity about Korea on the side of the school headquarters. ②The library must become familiar with the ways to utilize outsid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user education to the foreign students. ③In order to make it perfectly sure for them to provide not only the secondary materials such as bibliography, index, and abstract, but also the necessary full-text from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students' studies. ④The library must grasp the students' needs through communication and must promote the efficiency of library operation by introducing an information service strategy measure similar to that of FISP so they can acknowledge an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fulfill the students' academic needs in advance.

KEYWORDS

Library Management Improving Plan, Information System Environment, Information Use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통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승패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거듭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원이자 상품이며,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본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수 초 만에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글로벌 시스템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적 환경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변혁이 예고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수요자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등 대학의 경쟁력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

부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공급과 국제화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설립에 대한 법률을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개정하여 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대학원대학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된 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원대학은 준칙주의로 전환된 초기에는 신학대학원이 많이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전문화가 요구되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대학이 설립되고 있다.

2006년도 교육부 보고에 의하면, 한해 대학원대학의 석사 모집정원이 2,423명, 박사 모집정원이 416명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의 전체 모집정원으로 보아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고급인력육성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원대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차원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서 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이나 스터디 공간, 문화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도서관을 신축하고, 도서 및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은 대학본연의 연구 및 학습활동에 보다 나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

관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최신자료의 입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현황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교 가운데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의 주제배경 및 핵심전공을 중심으로 주제별 영역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원대학은 단일과 또는 핵심전공을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소속 도서관에서도 주제별 전문도서관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제에 부합하는 장서의 구성이 절대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서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장서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장서개발에 앞서 현 장서의 평가를 통한 현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도서관자료 전반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데 있다. 도서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도서관 자료 전반에 대한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의 특성이나 인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이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파악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국내·외적으로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 인력의 교육과 연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이 바르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규명해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 현장답사를 통한 실무자 인터뷰와 이용자(대학원생)질문지법을 병행하였으며, 인터넷검색 및 대학원대학 관련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대학원대학의 현황 및 교육여건을 알아보았다. 질문지의 구성은 전체를 3개의 카테고리 즉, 1)인구사회학적 분석, 2)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Q1-Q10), 3)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Q11-Q18)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8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대학원생 100명에게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50부가 회수(회수율 50%)되었으나, 답변이 불성실한 9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4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서구성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지금까지 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에 분류(한국도서관협회 2007)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진식(2007)은 한·중 학부생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정보입수나 지식축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도서관 문화행사를 통한 유인정책과 이용자교육의 강화, 수업연계 프로젝트, 전문사서 계속교육의 중요성 등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곽동철(2006)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로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환경의 변화, 대학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이나 학술정보관 등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 대학도서관 변화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정보자원 총량의 절대적 부족과 최신 해외 지식정보 자원의 적시 공급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대학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양관석(2006)은 미국의 USC, UCLA 두 개의 대학과 국내의 K대학도서관을 비교 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은 전문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비해 외국 대학은 일반 직원의 수가 전문직 보다 많아 전문사서가 전문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잘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분야에서는 전자저널 등에 관한 지속적인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세계화 시대 대학경쟁력 강화는 도서관의 경쟁력에 있음을 이해하고 외국대학처럼 도서관 예산상의 배려와 노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최성식(2006)은 지정도서제도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지정도서제도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학기 중 대출량이 많으므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이용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내 대학도서관 지정도서제도는 교수 및 이용자의 인식 부족과 예산 및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지정도서제도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운영효율화 방안으로 사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백혜숙(2004)은 전남지역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 21개 대학 중 4개 대학을 선정하여 설문문을 통한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한 시설 및 이용자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예산과 공간의 확보 및 전자자료 예약프로그램 도입, 전자정보실의 활성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정보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며, 대학도서관 정보이용자 교육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임선희(2003)는 구성원들의 학술지원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과 활성화 방안으로

지식을 중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및 체계가 필요하며, 지식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을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형식적 위주의 정보서비스에서 이용자 지향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Chooi(2004)는 오스트리아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나시 학생들에게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핵심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내용을 포함한 도서관 계획과 직원교육 프로그램 등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ltman(1988)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학술도서관의 기능별 구조는 주제별이나 이용자별 구조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앞으로의 도서관은 이용자봉사 측면에서도 정보서비스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제화가 중요하며, 정보접근에서도 주제접근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수집 데이터의 분석

2.1 도서관 기초통계자료 분석

대학원생들로부터 수집한 질문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도서관 자료구입비예산(추정치)과 장서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 구입비 예산 및 단

행본, 학술지 입수현황 등을 조사 하였다.

2.1.1 장서 입수현황

1) 자료구입비

자료구입비 예산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28%증가, 2007년에는 33%로 비슷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구입에서 단행본 구입이나 연속간행물 구독은 연차적으로 증가비용을 낮추고 있다. 단행본의 경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31%증가,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8%증가로 23%감소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43%증가,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별증가가 없었다. 반면 전자 자료의 경우는 구입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2007년도에는 무려 2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쇄저널 자료구입보다 비용이 저렴한 e-Book이나 e-Journal 등 전자자료 구독을 선호하고, 이용자의 접근편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료의 연도별 입수현황

단행본을 비롯한 연속간행물의 연도(2005년-2007년)별 입수현황과 전자자료 및 비도서 자료 보유현황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행본의 연도별 입수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각 172%, 203%씩 증가하였다. 단행본의 국내외 비율의 경우 국내서 29.8%에 비해 국외서는 70.2%로 국외단행본이 236%정도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외국인 학생비율이 높은 K대학원은 국내보다

<표 1> 자료구입비 예산(추정치)

단위: 천원

자료별 년도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계
2005년	31,300	94,400	70,248	195,948
2006년	40,990	134,880	74,129	249,999
2007년	44,347	135,590	151,412	331,349

<표 2> 단행본 입수현황

단위 : 권(%)

자료별 년도	국내서	국외서	계
2005년	4,000(18.9)	17,208(81.1)	21,208(100.0)
2006년	7,718(22.2)	28,742(77.8)	36,460(100.0)
2007년	12,852(29.8)	30,277(70.2)	43,129(100.0)

국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표 1>의 자료구입비 예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행본보다 전자 자료 쪽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처럼 국외서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약 67%증가에서 2007년에는 예산증감비율이 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의 연도별 입수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평균 국내학술지가 15.7%인데 비해 국외 학술지가 84.3%로 약 4배 정도 국외학술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 구독은 대학원중심 대학의 기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망라적 수준으로 경영 및

정책 분야의 국내/국외의 다양한 학술지를 수집하고 있다. 신속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학술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연구 성과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비도서자료의 보유현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도서자료 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구비함으로써 연구나 이용자의 여가를 위한 음악이나 영화 등도 구비되어 있다.

비도서자료 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구비함으로써 연구나 이용자의 여가를 위한 음악이나 영화 등도 구비되어 있다.

2007년부터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표 3> 연속간행물 입수 현황

단위: 종(%)

년도	구분	국내	국외	계
2005년		637(20.5)	2,475(79.5)	3,112(100.0)
2006년		820(15.5)	4,475(84.5)	5,295(100.0)
2007년		821(13.4)	5,303(86.6)	6,124(100.0)

<표 4> 비도서자료 보유현황

단위: 점

VOD	VHS	MF	CD	CT	계
425	791	256	4,223	371	6,066

<표 5> 전자자료 보유 현황

단위: 점

e-Journal	e-Book	웹DB	계
40,473	12,200	41	162,614

나 신속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저널 컨소시엄 등은 패키지형태로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격적인 면은 낮출 수 있지만, 이용자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타이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KDI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격은 비싸지만 개별구독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장서의 주제별 구성분포

1) 전체 장서구성

전체 장서의 주제별 구성분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KDI 대학원의 경우 LC분류법을 쓰고 있다. LC분류는 전문주제에 대한 전개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전문도서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KDI 대학원은 총 21개 영역에서, 1%미만인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제외하여 13개 영역이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ocial Science)영역이 2만6,910권 약 79.2%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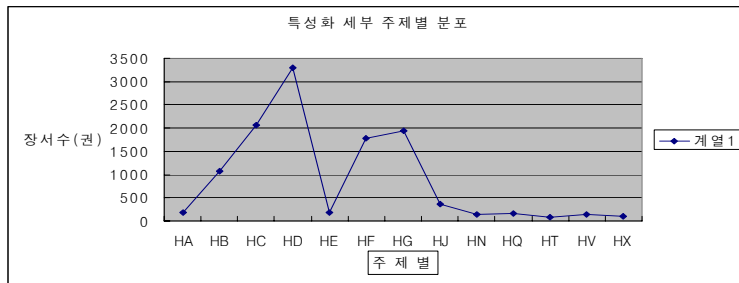
<표 6> 주제별 장서 구성분포

LC 분류	항 목	권수(권)	비율(%)	순위
A	General works	904	2.66	5
B	Philosophy	202	0.59	12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65	0.19	17
D	History	542	1.59	7
E/F	History : America	131	0.39	14
G	Geography	227	0.67	11
H	Social sciences(General)	26,910	79.17	1
J	General legislative and excutive papers	774	2.28	6
K	Law in general, comparative and uniform law, jurisprudence	1,135	3.34	2
L	Education(General)	418	1.23	8
M	Music	920	2.71	4
N	Visual arts	21	0.06	19
P	Philology, Linguistics	956	2.81	3
Q	Science(General)	246	0.72	10
R	Medicine(General)	108	0.32	15
S	Agriculture(General)	41	0.12	18
T	Technology(General)	299	0.88	9
U	Military science(General)	91	0.27	16
Z	Books(General), Writing, Paleography	154	0.45	13
	계	33,990	100.00	

있으며, K(Law) 1,135권 3%, P(Linguistics) 956권 2.8%, M(Music)920권 2.7%순으로 경제, 경영 중심의 사회과학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영역은 1~3% 사이로 사회과학 전문대학원 도서관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2) 특성화주제 분석: 사회과학 분야

KDI 대학원의 특성화부문인 H영역을 세분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정책 및 경영관련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LC분류 외에 별도의 자관 별치기호(REP)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분류에서는 H영역으로 포함시켰으나, 세



<그림 1> 특성화 세부 주제별

<표 7> 특성화된 H영역의 세부 현황

단위: 권

분류	항 목	권수	백분율(%)
H	REP(Research paper)	15,494	57.58
HA	Statistics	183	0.68
HB	Economic theory	1,081	4.02
HC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2,060	7.66
HD	Industries, land use, Labor	3,288	12.22
HE	Transporttation and communications	180	0.67
HF	Commerce	1,773	6.59
HG	Finance	1,939	7.21
HJ	Public finance	360	1.34
HN	Social history and conditions, Social problems	145	0.54
HQ	The family, marriage, women	164	0.61
HT	Communities ,classes ,races	86	0.32
HV	Social pathology, social and public welfare, criminology	140	0.52
HX	Socialism, communism, anarchism	17	0.06
	계	26,910	100.00

부분류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표 7〉에서 보면 H영역 2만6,910권 가운데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HD(Industries, Land Use, Labor)분야가 3,288권(12.2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HC(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2,060권(7.66%), HG(Finance) 1,939권(7.21%), HF(Commerce) 1,773권(6.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학

과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학(MPP), 경영학(MBA), 투자경영학(MFDD), 자산관리경영학(MAM)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장서의 주제별 이용 통계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3개년간의 연도별 이용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5년 이용자 대출 경향을 파악해 보면, 연간 대출 책 수 4,864권 가운데 H(Social

〈표 8〉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권(%)

LC분류 \ 연도	2005	2006	2007	이용순위
A	12(0.25)	41(0.88)	41(0.85)	12
B	114(2.34)	86(1.86)	126(2.61)	8
C	5(0.10)	0(0.00)	11(0.23)	16
D	235(4.83)	27(0.58)	99(2.05)	7
E	38(0.78)	27(0.58)	21(0.43)	13
F	2(0.04)	0(0.00)	0(0.00)	21
G	87(1.79)	96(2.07)	94(1.95)	10
H	2,769(56.93)	3,125(67.42)	2,901(60.07)	1
I	0(0.00)	2(0.04)	2(0.04)	20
J	186(3.82)	161(3.47)	161(3.33)	4
K	211(4.34)	78(1.69)	73(1.51)	6
L	77(1.58)	116(2.50)	107(2.22)	9
M	360(7.40)	141(3.04)	126(2.61)	3
N	2(0.04)	2(0.04)	2(0.04)	18
P	551(11.33)	536(11.56)	508(10.52)	2
Q	170(3.50)	110(2.37)	107(2.22)	5
R	0(0.00)	4(0.09)	4(0.08)	17
S	1(0.02)	2(0.04)	2(0.04)	19
T	25(0.51)	61(1.32)	61(1.26)	11
U	8(0.16)	8(0.17)	8(0.17)	15
Z	11(0.23)	12(0.26)	11(0.23)	14
계	4,864(100.00)	4,635(100.00)	4,829(100.00)	

Science)영역이 2,769권(56.93%)으로 이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P(Philology, Linguistics) 551권(11.33%), M(Music) 360권(7.40%), D(History) 235권(4.83%), K(Law in General, Comparative and Uniform Law, Jurisprudence)의 211권(4.34%)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연간 대출량 4,635권 가운데 H영역이 3,125권(67.42%)으로 이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P(Philology, Linguistics) 536권(11.56%), J(General Legislative and Executive Papers) 161권(3.47%), M(Music) 141권(3.04%), L(Education) 116권(2.50%)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연간 대출량 4,829권 가운데에서도 H영역이 2,901권(60.07%)으로 이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P(Philology, Linguistics) 508권(10.52%), J(General Legislative and Executive Papers) 161권(3.33%), B(Philosophy)와 M(Music)이 126권(2.61%)으로 같은 순이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대출통계를 분석해 보면 특성화부문인 H(Social Science) 영역의 이용률이 전체 21개영역 가운데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Philology, Linguistics)가 10.6%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개의 영역은 이용률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주로 정책과 경영분야로서 전공과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의 이용이 집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장서이용 대출통계 현황을 통해서 볼 때 KDI 대학원의 연구동향이 H(Social Science)와 P(Philology, Linguistic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분야로서 2005년도에는 D(History), K(Law), Q(Mathematics)순이며, 2006년도에는 J(General Legislative and Executive Papers), L(Education), Q(Mathematics)순으로 진행되던 것이, 2007년에는 J(General Legislative and Executive Papers), B(Philosophy)와 M(Music)영역으로 중심이동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부영역에서 오는 변화라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정책 입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KDI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본다면 보다 흥미롭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리라 본다.

2.2 질문지를 통한 이용 현황분석

2.2.1 인구사회학적 분석

본 연구의 질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응답자의 속성을 성별, 연령별, 전공영역, 학위과정, 국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자 28명(68.3%), 여자 13명(31.7%)으로 남자가 두 배 이상 많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13명(31.7%)으로 가장 많고, 31-35세 9명(22.0%), 20-25세와 36-40세가 각각 8명(19.5%), 41세 이상

3명(7.3%)으로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는 20세 부터 50세 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공영역은 경영과 정책으로 경영 은 25명(61.0%), 정책이 16명(39%)이며, 모 두가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나타났다.

질문지에 응답한 41명의 국적을 보면, 한국 을 비롯한 14개 국가로 한국이 24명(58.5%)

으로 가장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이라크, 캄보디아가 각각 2명(4.9%)씩, 중국을 비롯한 9개 국가에서 1명 (2.4%)씩으로 매우 다양한 인종을 구성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커뮤니티 학습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9〉 조사대상자들의 분석

단위:명(%)

구 분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	28	68.3
	여	13	31.7
연령	20-25세	8	19.5
	26-30세	13	31.7
	31-35세	9	22.0
	36-40세	8	19.5
	41세 이상	3	7.3
전공영역	경영	25	61.0
	정책	16	39.0
학위과정	석사과정	41	100.0
국적	방글라데시	2	4.9
	베트남	2	4.9
	부탄	1	2.4
	수단	1	2.4
	아프간	1	2.4
	에티오피아	1	2.4
	이라크	2	4.6
	이란	1	2.4
	중국	1	2.4
	체코	1	2.4
	캄보디아	2	4.9
	케냐	1	2.4
	코스타리카	1	2.4
	한국	24	58.5

2.2.2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질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항별(Q1- Q9) 분석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Q1. 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주제별 구성분포 만족도

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구성분포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면 ‘대체로 그렇다’가 22명(53.7%), ‘매우 그렇다’ 11명(26.7%)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80.4%가 만족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2.4%)만이 불만을 나타냈다.

Q2. 단행본 자료의 충분성

도서관에서 입수하고 있는 단행본 자료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41명 가운데 ‘대체로 그렇다’가 16명(39%), ‘매우 그렇다’ 7명(17.1%)으로 23명(56.1%)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13명(31.7%)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구수

행에 필요한 단행본 자료의 충분성에 대한 양적, 질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Q3. 단행본 자료의 최신성

도서관 자료가 적기에 시의 적절하게 입수되고 있는가 하는 최신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4명(34.1%), ‘대체로 그렇다’ 13명(31.7%), ‘보통’ 11명(26.8%), ‘대체로 그렇지 않다’ 3명(7.3%)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 68%정도가 만족, 94.8%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4. 희망도서 및 연구용도서 구입의 신속성

도서구입 요청 시 구입활동의 신속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21명(5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8명(19.5%)으로 응답하고 있어 약 71%가 만족하고 있으며 4명(9.8%)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Q5. 자료의 체계적 수집정도

<표 10> 도서관 자료에 관한 만족도 분석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1	11(26.7)	22(53.7)	7(17.1)	1(2.4)	0(0.0)
Q2	7(17.1)	16(39.0)	5(12.2)	13(31.7)	0(0.0)
Q3	14(34.1)	13(31.7)	11(26.8)	3(7.3)	0(0.0)
Q4	8(19.5)	21(51.2)	8(19.5)	4(9.8)	0(0.0)
Q5	14(34.1)	13(31.7)	11(26.7)	3(7.3)	0(0.0)
Q6	17(41.5)	13(31.7)	6(14.6)	5(12.2)	0(0.0)
Q7	15(36.6)	14(34.1)	9(22.0)	3(7.3)	0(0.0)
Q8	3(7.3)	13(31.7)	13(31.7)	10(24.4)	2(4.9)
Q9	8(19.5)	17(41.5)	11(26.8)	4(9.8)	1(2.4)
계	41(100.0)				

전공 관련분야 도서의 체계적 수집에 대한 응답에서는 ‘매우 그렇다’ 14명 (34.1%), ‘대체로 그렇다’ 13명(31.7%)으로 전체 27명(65.8%)이 전공 관련분야 도서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6. 학술잡지 구독종수에 대한 만족정도

연구수행 또는 학문동향 파악에 가장 중요한 최신 정보를 전공하고 있는 학술잡지 구독종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17명 (41.5%), ‘대체로 그렇다’ 13명(31.7%)으로 전공분야 학술잡지에 구독에 대해 30명(73.2%)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5명 (12.2%)정도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7. 전공분야 학술잡지의 최신성

전공분야 학술잡지의 최신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5명(36.6%), ‘대체로 그렇다’ 14명 (34.1%), ‘보통이다’ 9명(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도 3명(7.3%)이나 전공분야 학술잡지의 최신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70.7%정도의 만족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Q8. 원문(full-text) 입수에 대한 만족정도

연구수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원문이 도서관으로부터 적시에 제공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대답한 긍정적인 반응이 16명(39.0%)인데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12명(29.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필요한 원문을 필요한 시점에 제공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

은 도서관 정보사서의 정보서비스 역량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Q9. 단행본 자료에 대한 만족정도

단행본 자료 약 4만3,000권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그렇다’ 25명(61.0%)으로 ‘그렇지 않다’ 5명(12.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Q10. 단행본 자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

Q9와 관련해 단행본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①코스 북을 더 여유 있게 구입해 달라고 한 경우와 ②지정도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워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Q1-Q9까지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Q2(단행본 자료의 충분성)와 Q8(원문입수)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Q8에서 연구와 학습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문입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도서관 정보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정보사서의 서비스 역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3 도서관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질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도서관 이용횟수별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Q11.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분석

도서관 이용횟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41명 가운데 23명(56.1%)이 ‘거의 매일 이용 한다’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한번’이 17명(41.5%), ‘1개월에 1회’도 1명(2.4%)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빈도는 1주일에 한번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40명(97.6%)으로 이용이 꾸준하며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은 주1회 이용이 가장 높고, 외국 학생들은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대학원 도서관은 자료실과 스터디 룸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실내에서 열람 및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공간배치를 하였으며, 학기 중에는 평일과 토요일은 9시-22시까지, 일요일은 12시-22시까지(시험기간은 여기에서 1시간씩 더 연장)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 및 주말사서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으며, 도

서관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라운지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휴게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KDI 대학원의 특성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Q12. 자관(KDI 대학원) 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이용 빈도 비교

질문지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의 자관자료이용 분포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자관(KDI대학원) 자료 이용분포를 보면, 전체 41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61-80%가 14명(34.2%), 81-100%가 16명(39.0%)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자료 비율별 분포를 보면 41-60%가 6명(14.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에 61-80%는 5명(12.2%)으로 나타났다.

<표 11>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분석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회	월1회	합계
한국	9(22.0)	14(34.1)	1(2.4)	24(58.5)
외국	14(34.1)	3(7.3)	0(0.0)	17(41.5)
계	23(56.1)	17(41.5)	1(2.4)	41(100.0)

<표 12> 자관자료와 외부 기관자료 이용빈도

단위 : 명(%)

자관 (KDI 대학원)	61-80%	14	34.2
	81-100%	16	39.0
외부기관	41-60%	6	14.6
	61-80%	5	12.2
계		41	100.0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30명(73.2%) 정도 대다수가 자관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명(29.6%)정도가 외부기관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자료를 60%넘게 보는 경우가 60.9% (25명)로 도서관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13. 외부 기관자료 이용에 대한 국적별 분석
 응답자들의 외부 기관자료 이용실태를 국적별로 구분하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관(KDI 대학원)이 아닌 타 기관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연구기관 전문도서관 18명 (43.9%)이며, 그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8명(19.5%)을 많이 찾고 있으며, 그 밖에 대학도

<표 13> 외부자료의 이용에 대한 국적별 분석

		단위: 명(%)	
① 타 대학도서관	4(9.8)	한국	4(9.8)
		외국	0(0.0)
② 공공도서관	8(19.5)	한국	8(19.5)
		외국	0(0.0)
③ 국내 연구기관 전문도서관	18(43.9)	한국	8(19.5)
		방글라데시	2(4.9)
		베트남	1(2.4)
		아프간	1(2.4)
		이라크	1(2.4)
		이란	1(2.4)
		체코	1(2.4)
		캄보디아	2(4.9)
④ 동료연구자 및 학자	1(2.4)	한국	0(0.0)
		베트남	1(2.4)
⑤ 상업적 정보서비스기관	4(9.8)	한국	3(7.3)
		부탄	1(2.4)
⑥ 국외도서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4(9.8)	한국	1(2.4)
		에티오피아	1(2.4)
		이라크	1(2.4)
		케냐	1(2.4)
⑦ 학술회의(학회, 세미나 등)	2(4.9)	한국	0(0.0)
		수단	1(2.4)
		중국	1(2.4)
계			41(100.0)

서관이나 상업적 정보서비스기관 등의 도서관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 대학원생들은 주로 연구기관의 전문도서관이 8명(19.5%)과 공공도서관 8명(19.5%) 그리고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 대학원생들은 연구기관 전문도서관과 상업적 정보서비스 기관이나 국외도서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도

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대표 공공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Q14.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방법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연구추세 및 동향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다수 30명

<표 14>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방법에 대한 분석

		단위: 명(%)	
① 학술잡지의 최근호를 읽음으로써	30(73.2)	한국	18(43.9)
		방글라데시	2(4.9)
		베트남	2(4.9)
		부탄	-
		수단	1(2.4)
		아프간	1(2.4)
		에티오피아	1(2.4)
		이라크	1(2.4)
		이란	1(2.4)
		중국	-
		체코	1(2.4)
		캄보디아	-
		케냐	1(2.4)
		코스타리카	1(2.4)
		② 전문분야의 학술모임의 참석을 통해서	4(9.8)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수단	-		
아프간	-		
에티오피아	-		
이라크	-		
이란	-		
중국	1(2.4)		
체코	-		
캄보디아	1(2.4)		
케냐	-		
코스타리카	-		

③ 동료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5(12.2)	한국	4(9.8)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1(2.4)
		수단	-
		아프간	-
		에티오피아	-
		이라크	-
		이란	-
		중국	-
		체코	-
		캄보디아	-
		케냐	-
		코스타리카	-
④ 해외 관련 연구기관의 방문	0(0.0)	한국	-
		외국	-
⑤ 기타	2(4.9)	한국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수단	-
		아프간	-
		에티오피아	-
		이라크	1(2.4)
		이란	-
		중국	-
		체코	-
		캄보디아	1(2.4)
케냐	-		
코스타리카	-		
		41(100.0)	

(73.2%)이 학술잡지의 최근호를 읽음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Q15. 자료이용 목적에 대한 분석

자료이용 목적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과제 수행 18명(43.9%), 학위논문 준비 15명(36.6%), 학계 동향 파악 8명(19.5%)

순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학위논문 준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외국의 유학생들은 학위논문보다는 연구프로젝트 과제수행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Q16. 형태별로 본 자료의 이용빈도 분석

응답한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자료를 형태

〈표 15〉 자료이용 목적에 대한 분석

		단위:명(%)	
① 학위논문준비	15(36.6)	한국	10(24.4)
		방글라데시	1(2.4)
		베트남	-
		부탄	-
		수단	1(2.4)
		아프간	1(2.4)
		에티오피아	-
		이라크	1(2.4)
		이란	1(2.4)
		중국	-
		체코	-
		캄보디아	-
		케냐	-
		코스타리카	-
② 연구과제수행	18(43.9)	한국	11(26.8)
		방글라데시	-
		베트남	1(2.4)
		부탄	1(2.4)
		수단	-
		아프간	-
		에티오피아	-
		이라크	1(2.4)
		이란	-
		중국	1(2.4)
		체코	-
		캄보디아	2(4.9)
		케냐	-
		코스타리카	1(2.4)
③ 학계 최근 동향 파악	8(19.5)	한국	3(7.3)
		방글라데시	1(2.4)
		베트남	1(2.4)
		부탄	-
		수단	-
		아프간	-
		에티오피아	1(2.4)
		이라크	-
		이란	-
		중국	-
		체코	1(2.4)
		캄보디아	-
		케냐	1(2.4)
		코스타리카	-
41(100.0)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를 12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 ① 단행본은 ‘자주 이용’ 15명(36.6%), ‘항상 이용’ 13명(31.7%)과 ‘가끔 이용’ 13명(31.7%)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바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행본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정기간행물에서는 ‘항상 이용’ 9명(22.0%)과 ‘자주 이용’ 7명(17.1%)에 비해 ‘가끔 이용’ 20명(48.8%)과 ‘잘 이용하지 않는다’에 5명(12.2%)이 응답하고 있어 정기간행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학술연구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공급해 주며, 연구동향 내지는 학문의 흐름과 조류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정보미디어로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③ 회의자료는 약 49%정도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이용 빈도가 낮아 정보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 ④ 연구보고서의 이용빈도 또한 회의자료와 같이 ‘가끔 이용’이 12명(29.3%)이

며, 전체적으로 약 37%정도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⑤ 학위논문은 ‘가끔 이용’이 19명(46.3%), ‘이용하지 않는다’ 11명(26.9%)으로 이용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의 이용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⑥ 신문은 ‘항상 이용’이 11명(26.8%), ‘자주 이용’이 19명(46.3%)으로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뉴스(정보)매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국인에서만 4명(9.8%)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외국인은 신문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⑦ 정기간행물은 ‘가끔 이용’이 18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상 이용’ 또는 ‘자주 이용’과 ‘잘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교하면, 정기간행물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에 내국인이 7명(17.1%)인데 비해 외국인은 1명(2.4%)에 불과했으며, ‘항상 이용’에 대한 응답에서는 내국인이 없는데 반해 외국인은 5명(12.2%)으로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 ⑧ 전자저널은 ‘항상 이용 한다’ 또는 ‘자주 이용 한다’가 10명(24.4%)과 13명(31.7%), ‘가끔 이용’ 9명(22.0%)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국인에서만 8명(19.8%)로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아직도

〈표 16〉 형태별로 본 자료의 이용빈도 분석

단위: 명(%)

구분	국적	항상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가끔 이용한다	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단행본	내국인	7(17.1)	6(14.6)	11(26.8)	0(0.0)	0(0.0)
	외국인	6(14.6)	9(22.0)	3(7.3)	0(0.0)	0(0.0)
	계	13(31.7)	15(36.6)	13(31.7)	0(0.0)	0(0.0)
(2) 정기간행물	내국인	3(7.3)	7(17.1)	11(26.8)	3(7.3)	0(0.0)
	외국인	6(14.6)	0(0.0)	9(22.0)	2(4.9)	0(0.0)
	계	9(22.0)	7(17.1)	20(48.8)	5(12.2)	0(0.0)
(3) 회의자료	내국인	1(2.4)	3(7.3)	5(12.2)	11(26.8)	4(9.8)
	외국인	2(4.9)	2(4.9)	8(19.5)	4(9.8)	1(2.4)
	계	3(7.3)	5(12.2)	13(31.7)	15(36.6)	5(12.2)
(4) 연구보고서	내국인	3(7.3)	5(12.2)	7(17.1)	8(19.5)	1(2.4)
	외국인	1(2.4)	5(12.2)	5(12.2)	5(12.2)	1(2.4)
	계	4(9.8)	10(24.4)	12(29.3)	13(31.7)	2(4.9)
(5) 학위논문	내국인	2(4.9)	4(9.8)	11(26.8)	7(17.1)	0(0.0)
	외국인	1(2.4)	4(9.8)	8(19.5)	2(4.9)	2(4.9)
	계	3(7.3)	8(19.5)	19(46.3)	9(22.0)	2(4.9)
(6) 신문	내국인	6(14.6)	11(26.8)	3(7.3)	2(4.9)	2(4.9)
	외국인	5(12.2)	8(19.5)	4(9.8)	0(0.0)	0(0.0)
	계	11(26.8)	19(46.3)	7(17.1)	2(4.9)	2(4.9)
(7) 정부간행물	내국인	0(0.0)	7(17.1)	9(22.0)	7(17.1)	1(2.4)
	외국인	5(12.2)	2(4.9)	9(22.0)	1(2.4)	0(0.0)
	계	5(12.2)	9(22.0)	18(43.9)	8(19.5)	1(2.4)
(8) 전자저널	내국인	3(7.3)	7(17.1)	6(14.6)	4(9.8)	4(9.8)
	외국인	7(17.1)	6(14.6)	3(7.3)	1(2.4)	0(0.0)
	계	10(24.4)	13(31.7)	9(22.0)	5(12.2)	4(9.8)
(9) 데이터베이스	내국인	6(14.6)	3(7.3)	10(24.4)	1(2.4)	4(9.8)
	외국인	4(9.8)	6(14.6)	5(12.2)	1(2.4)	1(2.4)
	계	10(24.4)	9(22.0)	15(36.6)	2(4.9)	5(12.2)
(10) CD-ROM, DVD	내국인	2(4.9)	3(7.3)	6(14.6)	6(14.6)	7(17.1)
	외국인	2(4.9)	4(9.8)	5(12.2)	2(4.9)	4(9.8)
	계	4(9.8)	7(17.1)	11(26.8)	8(19.5)	11(26.8)
(11) 오디오/비디오자료	내국인	1(2.4)	3(7.3)	9(22.0)	4(9.8)	7(17.1)
	외국인	1(2.4)	1(2.4)	5(12.2)	5(12.2)	5(12.2)
	계	2(4.9)	4(9.8)	14(34.1)	9(22.0)	12(29.3)
(12) 마이크로형태자료	내국인	0(0.0)	1(2.4)	4(9.8)	6(14.6)	13(31.7)
	외국인	2(4.9)	0(0.0)	4(9.8)	4(9.8)	7(17.1)
	계	2(4.9)	1(2.4)	8(19.5)	10(24.4)	20(48.8)

전자저널 이용에 친숙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⑨데이터베이스는 ‘가끔 이용’ 15명(36.6%), ‘항상 이용’ 10명(24.4%), ‘자주 이용’ 9명(22.0%)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7명(17.1%)에 비해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중에는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나 학습에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⑩CD-ROM, DVD 활용은 이용 빈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⑪오디오/비디오 자료는 ‘항상 이용’ 또는 ‘자주 이용’이 6명(14.7%)인데 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21명(51.3%)으로 여가

선용에 활용될 뿐 연구용 또는 학습자료로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⑫MF자료 역시 도서관 자료유형 중 이용 빈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20명(48.8%)으로 공간 활용측면에서만 기여하고 있을 뿐 학술적 측면의 활용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Q17. 연구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에 대한 분석

대학원생들이 연구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DB 9명(22.0%), 인터넷상의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8명(19.5%), 서지·색인·초록 7명(17.1%) 순으로 온라인 DB를 가장 선호하

<표 17> 연구준비단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에 대한 분석

			단위: 명(%)
① 서지, 색인이나 초록	7(17.1)	한국	3(7.3)
		외국	4(9.8)
② 직장동료 및 선임연구자	0(0.0)	한국	0(0.0)
		외국	0(0.0)
③ 도서관 인터넷 장서검색	8(19.5)	한국	7(17.1)
		외국	1(2.4)
④ 도서관 서가	3(7.3)	한국	1(2.4)
		외국	2(4.9)
⑤ 도서관 사서와의 상담	3(7.3)	한국	1(2.4)
		외국	2(4.9)
⑥ 도서 및 학술잡지의 참고문헌	5(12.2)	한국	2(4.9)
		외국	3(7.3)
⑦ 본인 소장자료	4(9.8)	한국	3(7.3)
		외국	1(2.4)
⑧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9(22.0)	한국	7(17.1)
		외국	2(4.9)
계			41(100.0)

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자료의 존재유무를 밝혀주는 서지·색인·초록과 같은 2차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도서관 서가의 브라우징이나 도서관 사서와의 상담 등은 저조한 편이며, 직장 동료나 선임연구자와의 교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원생과 외국 대학원생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인터넷상의 도서관장서 검색과 온라인 DB, 그리고 본인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상의 장서 검색은 한국 7명(17.1%)인데 비해, 외국은 1명(2.4%)에 불과했으며, 온라인 DB 검색에서도 한국은 한국 7명(17.1%)인데 비해, 외국은 2명(4.9%)에 그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온라인 DB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Q16의 <표 18>에서 제시된 12개 항목의 5점 척도에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도서관 소장 자료 중 12개 항목에 포

함되지 않은 온라인 DB가 연구준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Q18.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질문지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년 이내 출판된 자료 29명(70.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5-10년 이내 출판된 자료는 4명(9.8%)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 문헌의 인용 분석에서 측정된 반감기(Half-life)가 6-8년이므로 경영·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 관련 연구자들이 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4 신뢰성 분석

본 연구조사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8>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단위: 명(%)
최근 1년 이내 출판된 자료		8(19.5)
2-5년 이내 출판된 자료		29(70.7)
5-10년 이내 출판된 자료		4 (9.8)
계		41(100.0)

<표 19>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대상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N=41)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9	1,2,3,4,5,6,7,8,9	0.80
자료의 이용정도에 관한 사항	8	11,12,13,14,15,16,17,18	0.80

첫째,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뢰성분석은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9개의 설문항목에 기초하여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에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 0.80)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자료의 이용정도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자료의 이용정도에 관련된 8개의 설문항목에 기초하여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료의 이용정도에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 0.80)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개의 변수들은 모두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제언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주제별 구성분포와 구입요청 도서의 신속성, 자료의 최신성, 자료수집의 체계성 등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조사에서 규명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구성의 충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구성의 주제별 분포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Q2에 제시된 단행본 자료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약 32.0%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행본 자료구성에 대한 양적·질적 측면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원문(full-text)제공이 미흡하다.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문 입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Q8의 '원문 입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전체의 30%정도가 원문 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정보사서와의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료 대출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Q10에서 단행본 자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서 ①코스 북의 구입 확충 ②지정도서제도 시행으로 인한 대출 불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③단행본 자료의 복본 부족으로 인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와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본구입에 대한 검토와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외부기관 도서관자료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Q13에 외부기관의 도서관자료 이용조사에서 보면 약 44.0%정도가 연구단지 내 연구기관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국적을 가진 13개국 17명의 대학원생들은 자원이 풍부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자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적 문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통한 충

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DB 및 서지·색인 등의 2차 자료 확충이 요구된다.

Q17에서 대학원생들이 연구준비단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각종 자료의 존재 유무를 알리는 서지·색인·초록과 같은 2차 자료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났다. 이들은 Q16의 12개 유형으로 구분한 도서관 형태별 자료 이용에 관한 5점 척도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 인식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확충·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다국적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다채로운 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대학 본부 측에서 외국대학원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한국에 대한 폭넓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용자 교육에 의한 외부기관자원 활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원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용요구를 파악하여 서지, 색인, 초록 등과 같은 2차 자료는 물론 연구준비 단계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원문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문적 요구를 사전 인지하여 제공할 수

있는 FISP(Forecasting Information Service Program)와 같은 정보서비스 전략방안을 도입하여 도서관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동철. 2006.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41-161.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형관 외 저. 2005.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75-396.
- 백혜숙. 2004.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양관석. 2006. 『대학도서관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해외대학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한 K대학 도서관 사례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선희. 2003. 『대학도서관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진식. 2007. 대학도서관 인식분석을 통한 문제점규명과 대응방안: 한·중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 203-228.
- 최성식. 2006. 『신학대학 도서관의 지정도서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도서관협회. 2007.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ltman, A. E. 1988. "The Academic library of tomorrow: who will do what?" *Canadian Library Journal*, 45(3): 147-152.
- Chooi, Hon Ho. 2004. "Managing the e-library in a global environment : experiences at Monash University, Australia." *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38(3): 168-175.